

국제수산월간동향

2020. 7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차 례

1. 몰타의 다랑어 불법 축양 소송 법적 교착 상태1
2. 태깅 프로그램이 보여준 다랑어 회유경로2
3. 스페인 대법원, 참다랑어 영세어민 보호 판결 선고 4
4. 노르웨이 AquaCon 미국 메릴랜드에 양식장 건설 계획 6
5. 서아프리카 양식업계 다음달 Fish Expo West Africa 개최..... 8
6. 중국 어선 살오징어 불법 조업 증거 10
7. 일본 마루하 니치로, 코로나19 이후 새우 상품 전략 12

1

몰타의 다랑어 불법 축양 소송 법적 교착 상태

-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 몰타를 상대로 3천5백 마리의 다랑어를 1년째 케이지에서 축양하고 있다는 사실에 침해 소송을 진행한지 두 달이 되었음.
- 2019년 여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어부들이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가 설정한 어획 마감 기한을 지나서 어획한 다랑어를 몰타에 판매를 하였음.
- 그 이후 수천 킬로그램에 달하는 양의 다랑어가 몰타의 케이지에서 축양되고 있음.
- 세계자연기금(WWF)은 현재 몰타의 케이지에서 축양되고 있는 다랑어의 사망률에 우려를 표하였으며 케이지가 규제 받고 있지 않아 불법 어업에 대한 우려 또한 있다고 하였음.
- EU는 몰타는 2년 전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보존관리 조치 뿐 아니라 EU의 관리 규제 또한 이행에 실패하였다고 하였음. 현재 몰타는 몰타 관할권 지역에서의 EU 검사를 불허하고 있음.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¹⁾

1)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20/07/20/one-year-on-3500-tuna-still-stuck-in-maltese-cages-due-to-legal-impasse/> (2020년 7월 28일 검색)

- ICCAT이 대서양 열대다랑어 태깅 프로그램 (AOTTP)으로 12만 마리가 넘는 열대다랑어 태그가 회수되었음을 발표했다.
- AOTTP의 목표는 재래식 방식과 전자적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5년 동안 대서양 전역에 걸쳐 12만 마리가 넘는 열대다랑어를 태깅하는 것이었음. 수집된 데이터는 자원평가에 투입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추정을 개선하는 데 사용됨.
- 2020년 5월 25일 부로 120,382마리의 열대 다랑어가 태깅되고 재포획되었는데, 어종별로는 눈다랑어 24,197마리; 가다랑어 46,938 마리; 리틀터니 7,933 마리; 황다랑어 40,777마리임. 고등어과의 일종인 꼬치삼치(wahoo) 281마리도 태깅되어 재포획되었음.
- 태그 데이터에 따르면, 다랑어들은 광범위한 회유 경로를 보임. 태그는 다랑어의 복부에 삽입되고 봉합되는데, 내·외부 온도, 수심, 밝기 등에 관한 데이터가 수집됨. 회수된 태그는 ICCAT에 보고되어야 함.
- ICCAT은 귀중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태그를 회수하여 반납할 경우 1,000유로의 상금을 주고 있음.
- 전자적 태그의 경우, 태그로부터 정보가 다운로드 되면, 다랑어의 대략적인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음. 전자적 태그는 8년 동안 매 15초마다 샘플을 수집할 수 있음. 지금까지, AOTTP 프로그램에 의해 400개가 넘는 전자적 태그가 부착되었고 이 중 40개 이상이 회수되었음.
- 한 태그에 담긴 정보에 의하면, 2017년 10월 7일 생피터, 생폴 제도(브라질령) 인근에서 태깅된 70cm 황다랑어가 557일 뒤, 서아프리카 연안에서 129cm로 성장하여 재포획되었음. 태그의 데이터는 어류가

대서양을 횡단하고 남부 스페인 연안에까지 다녀왔음을 나타냈음.

- ICCAT은 AOTTP 결과에 대해 6월 중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논의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회의는 2021년 초로 연기되었음.

※ 기사 출처: www.atuna.com²⁾

2)

<https://atuna.com/news/tagging-program-shows-extensive-tuna-migration-pattern?highlight=WyJpY2Nh dCIsImljY2F0J3MiXQ==> (2020년 7월 16일 검색)

- 스페인 대법원은 2019년에 공포된 동부대서양과 지중해 참다랑어를 규율하는 법의 일부가 영세어민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로써, 선주가 동일한 선박 간 참다랑어 쿼터를 전배할 수 있는 규정이 무효로 확정되었음.
- 스페인의 한 영세 회사는 2019년에 공포된 법이 규모가 큰 회사들에게 특혜를 주고 규모가 작은 회사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음.
- 문제가 된 조문은 “선주가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한 어구 그룹에 속하지 않는 선박 간 쿼터 전배가 허용된다”임.
- 법에 따르면, 여러 어장에서 많은 선박들을 소유하고 있는 큰 회사들은 선박 간 쿼터 전배를 통해 특정 구역에서의 어획한도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
- 판결문은 “재정능력이 큰 선단들만이 전체 쿼터를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참다랑어 판매를 통한 수익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의 이익이 박탈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
- 판결문은 어구가 다른 선박 간 전배 허용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또한 언급했음.
- 원고들은 법의 적용대상과 허가된 참다랑어 선단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스페인 대법원이 기각하였음. 카나리제도 자치공동체 또한 같은 법의 쿼터 할당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또한 대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었음.

※ 기사 출처: www.atuna.com³⁾

3)

<https://atuna.com/news/supreme-court-annuls-regulation-favoring-large-bluefin-operators?highlight=WyJpY2NhdCIsImljY2F0I3MiXQ==> (2020년 7월 10일 검색)

□ 2027년까지 총 10억 달러 투자하여 3개 연어 양식 시설 건설 추진

- 노르웨이 기업 AquaCon이 내년부터 미국 메릴랜드 동부 연안에 3억 달러 양식 시설 건설을 시작할 예정임
- AquaCon은 새로운 양식장으로 매년 수천 톤의 연어를 생산하고 수백 명의 고용창출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됨
- 궁극적으로 2027년까지 델마버 반도에 총 세 개의 연어 양식장 건설을 목표로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AquaCon은 현재 이를 위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
- AquaCon 관계자에 따르면 메릴랜드가 선택된 이유는 예부터 많은 수산물을 생산해온 지역이며, 수산물 시장과 근접해 있고, 연어 양식을 위한 많은 양의 담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임
- 이에 더해 메릴랜드, 볼티모어 카운티 대학(UMBC)과 해양환경기술재단 등과의 연구협력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UMBC 교수 Zohar는 본 연어 양식장 건설을 통해 대서양 연어의 수입을 줄이고 국내 수산물 허브를 설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예상함
- 미국은 대서양 연어의 상업 조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매년 50만 톤에 달하는 연어를 수입하고 있음
- AquaCon은 2024년 케롤라인 카운티의 페더럴스버그에 완성 예정인 첫 번째 메릴랜드 양식장에서 연어 생산을 시작할 것이고, 2025년과 2027년 두 번째, 세 번째 양식장을 개장할 것이라 밝혔음

- 각 양식장은 연간 15,000톤의 연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연어양식은 전통적으로 해안 가두리 양식으로 생산되어 왔으나, 점점 많은 연어 양식이 육지에 있는 대형 탱크로 물을 재순환시키는 기술을 이용하여 연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 메릴랜드에 개설될 양식장도 동 기술을 사용할 것임
- AquaCon 최고경영자는 동부 연안 시설에서 5년 동안 500여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 기사 출처: www.baltimoresun.com⁴⁾

4

<https://www.baltimoresun.com/news/environment/bs-md-salmon-aquaculture-20200707-dip33kv2bzbfpbk6r4j2ttf4a-story.html> (6월 17일 검색)

- 가나, 나이지라이 등 주요 서아프리카 양식국가 주도, “세계적인 참여 기대”
 - 서아프리카 양식업계는 8월 Fish Expo West Africa를 3일간 개최하여 양식업자와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이 상품을 소개하고 지식 공유와 합작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계획하고 있음
 - 서아프리카 양식업자들은 또한 대중의 신뢰를 얻고 틸라피아와 메기 판매를 증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식장을 대중에게 공개하려 함
 - 서아프리카 주요 양식국은 가나와 나이지리아이지만, 최근 부르키나 파소,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기니에 투자가 증가하며 서아프리카 내 생산량의 상당한 증가가 기대됨
 - 생산량이 증가하자 판매를 위한 시장 개척의 필요가 중요 이슈로 부상하며 서아프리카 소비자의 전통적인 선호를 바꾸고, 틸라피아와 메기의 생산 및 수요, 수출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선어 메기를 먹기 주저하는 서아프리카 사람들의 식성이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제기 됨
 - 한 양식기업 CEO는 “전통적인 태도를 바꾸고 가나와 서아프리카인들이 메기를 먹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설명함
 - 이러한 필요에 의해 본 엑스포가 열리게 된 것이며, 내년에도 연속하여 개최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올해 내로 틸라피아 및 메기의 날 설립을 위한 가나 수산양식부와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
 - 한 관계자는 “엑스포 개최 전에 틸라피아 및 메기의 날로 먼저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것” 이라고 말하며, “메기와 틸라피아가 맛과 영양을 모두 충족하는 만큼, 건강한 먹거리를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 국민과 경제를 더욱 건강히 만들 국내 식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힘

- 그는 본 엑스포에 여러 국가의 세계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말하며 “가나와 나이지리아는 이미 양식분야에서 유용한 연결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내에서 가나 양식업체들의 양식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엑스포에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 합동사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함

출처: The Fish Site⁵⁾

5) <https://thefishsite.com/articles/ghana-aims-to-ramp-up-farmed-catfish-and-tilapia-sales>

- 북한 수역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미국 일본 등 8개 연구 기관이 논문 발표
 - 17~18년 추정 양륙 16만 톤
 - 구글(Google)의 협력 하에 있는 미국의 민간 비영리단체(NPO)인 글로벌 피싱위치(GFW)와 수산연구교육기구 등 8개 연구기관은 22일(미국 시간)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대량의 살오징어를 불법 어획하고 있다는 논문을 공개**
 - 북한 수역에서의 **UN 안보리의 제재를 무시한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은, 2017~18년의 추정 어획량 16만 톤**은 같은 기간의 **한일 합계 수양량과 거의 비슷하며, 470억 엔에 가까운 어획 금액이라고** 시산
 - 이러한 **중국의 불법 어획이 살오징어 자원에 위협적이라고** 결론
 - 동일 과학잡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린 논문 “**북한 해역에서의 보이지 않는 어선을 명확히 밝혀낸다**”의 편집에는, 수산 연구·교육 기구나 GFW, 호주나 한국 등의 8개 연구기관이 협력
 - 인공위성으로 배의 광학 화상 집어등 화상레이더등의 정보와 선박 자동 식별 장치(AIS)의 정보를 조합해 위법 어선의 움직임을 규명
 - 논문 분석에서는 **북한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17년에 900척, 18년에 700척을** 넘어 섰고, 이러한 선박이 한국 연안 어선과 동일한 정도의 효율(어획 노력량 당 어획량 = CPUE)로 조업한 경우, 수양량은 16만 톤으로 한일 합계 수양에 필적하는 약 470억 엔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중국 선박은 중국 당국의 관할 외에서 조업하는 **무등록, 무기국, 무허가 선박일 가능성이 있어 만약 중국과 북한 양국의 허가를 얻어 조업한다고 해도 UN 규칙에 위반됨**

- 이러한 중국 선박은 쌍끌이 트롤이나 집어등이 달려 있는 투망 등을 보유한 대형 선박으로 이러한 중국 대형 어선에 밀려난 북한 소형 어선이 인접한 러시아 수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집어등 데이터 등으로 알 수 있음
- 또한 러시아 수역에 나온 북한 어선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충분하지 않은 장비로 출항했기 때문에 북한 어민의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GFW 박재윤 수석 데이터 연구원(Senior data scientist)는 “북수의 인공 위성 데이터를 통합하여 정확히 상황을 해석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한하면 이 어업은 **단독국이 타국에서 자행한 불법 어업 중 최대 규모일 것이다.**” 동 기구의 미야하라 이사장은 “이 해역에서의 불법 어업은 데이터 공유와 관리의 결여가 큰 문제이다. 신뢰할 수 있는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에 직면해야 한다”고 설명
- 17년, UN 안보리는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는 북한에 제재를 발동, 중국을 포함한 각국은 **(1) 북한으로부터 수산물 입수 (2) UN 승인 없이 북한과 합작 투자 기업 활동 (3) 북한으로부터 어업권 이양, 매수를 일체 금지함**
- 동 기구에 따르면, 일본 근해의 살오징어 개체군 2개는 14년에 합계 253만 톤의 자원이 있었지만, **작년에는 합계 77만 톤으로 줄었다고 추정됨**
- **작년 일본의 살오징어 어획량은 3.3만 톤으로 현행 통계 사상 최저**, 동 기구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산란해야 할 친어가 부족하여 환경 조건이 관찮은 해에도 자원 회복이 어려운 상황
- **법적으로도, 자원적으로도 중국의 북한 수역에서의 살오징어 불법 조업문제는 심각한 문제**

※ 출처: 일본 미나토 신문⁶⁾

6)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3451> (20년 7월 28일 검색)

□ 고단가 상품은 여전히 저조, 소형, 업무용은 회복 중

-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 새우 생산이 지체, 소비 행동도 변화하는 등 여러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일본 국내 새우 취급 탑 셰어인 마루하 니치로의 수산 제3부 부장에게 올해 새우 동향을 확인
- (힌다리 새우 생산 상황)
 - (인도) 힌다리 새우의 첫 수확은 3월 시작된 록 다운 영향으로 지난 해보다 큰폭 감소, 8월 말 무렵부터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연간 생산량은 전년의 7~8할 정도가 될 것
 - (베트남) 2월 초에 처음 수확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은 없었고, 코로나19 영향에도 비교적 수요가 있는 소형 새우만 공략해서 수확하는 기술을 가진 양식업자가 생산을 지속하고 있어 수급 균형이 맞춰져 있음
 - (중남미) 공장 가동률은 반 정도로 줄었고, 인력도 부족해서 생산 주력을 중국 向으로 돌렸지만, 판매 상황이 불투명하여 4월부터 감소
 -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는 선주와 노동자의 노사협상 타결이 장기화, 새 상품 반입은 빨라야 11월 하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일본 국내 판매 상황)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매가 저조하지만 양판점용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가공 기업에 대한 판매는 4월, 전년 동월 대비 90~110%로 비교적 호조, 고전하고 있던 업무용도 서서히 회복 중, 랍스터, 스캠피, 모란 새우 등의 고단가 상품은 호텔 외식 업계 수요가 감소하여 여전히 저조

○ (판매 방침)

- (도매) 맛 간편함을 강조한 상품 개발, 구분 작업이 간편할 수 있도록, 크기, 품종별로 색을 구별한 패키지 채용
- (일반 소비자) 조리 간편화를 강조하여 해동 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새우 튀김을 기존 상품보다 독자적인 기술로 바삭바삭한 식감을 개선

※ 출처: 미나토 신문⁷⁾

7)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3586> (20년7월30일 검색)